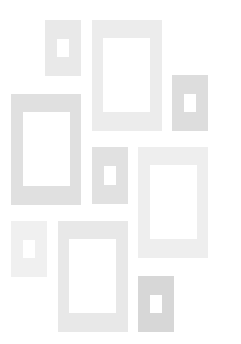


타성에 젖어 신행생활 하지 마세요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며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 ‘아름다운 마무리’ 중

법정 스님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 스님은 길상사 창건 후 회주를 맡아 크고 작은 법회에서 대중들에게 맑고 향기로운 법음을 전했다. “내생에도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 다시 출가 수행자가 되어 금생에 못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고 하신 법정 스님의 법음을 다시 듣는다. **법문제공=길상사 정리=박선주 기자 Zoo211@buddhanews.com**



줄여서 말하면 청정도량에는 도량이 상주한다는 뜻입니다. 절에는 어느 절이나 그 도량을 보살피고 지키는 도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에요.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도량이 그 도량에 사는 사람이나 그 도량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낱알이 보살피고 지키니까. 신앙심이 지극하고 식이 맑은 사람들, 정신이 맑고 투명한 사람들은 어떤 절이든지 들어서자마자 절의 분위기가 신성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도량은 그 도량에 필요한 존재는 사람이든 나무든 도량에 머물도록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도량에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는 거부해요.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런 현상은 굳이 문헌을 들을 것도 없이 반세기 남짓 크고 작은 도량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제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개인 의지만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도량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도량을 주관해요. 그 도량의 의지가 개인의 의식에 작용해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승가 생명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청정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불을 올릴 때 ‘지심귀명례 청정승가야중’ 하지 않습니까? 승가 생명력은 청정성에 있어요. 청정성은 진실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승가 생명력은 청정과 진실에 있습니다.

길상사를 가리켜 ‘맑고 향기로운 근본도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과연 이 절이 맑고 향기로운 도량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절에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 절을 의지해서 드나드는 불자들은 삶이 저마다 ‘맑고 향기로운가? 맑고 향기롭게 개선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맑음은 개인이 지닌 청정과 진실에 말하고, 향기로움은 그 청정과 진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메아리입니다. 이 도량에서 익히고 닦은 기도와 정진의 힘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이나 이웃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점검해야 합니다.

절이 생기기 전에 수행이 있었습니까. 절이 생기고 나서 수행이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절이나 교회를 습관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절에 다닌 지 10년, 20년 됐다는 신도들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버릇처럼 절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습다. 이 분들은 절 재정에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앙 생활의 알맹이는 소홀해요. 절이나 교회를 습관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은 ‘종교는 마약이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해요. 내가 왜 오늘 절에 가는가? 왜 교회에 가는가? 그때그때 스스로 물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그래야 자기 삶이 바뀝니다. 삶은 바뀌지 않고 행사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그 절·교회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무엇 때문에 절에 나가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지 냉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도 훨씬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상사가 생긴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불자들 신심과 정성으로 현재와 같은 절이 됐습

제가 말하지 않아도 참으로 눈부신 봄날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한 때이기 때문에 저에게 매 순간이 소중한 겁니다. 요즘은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인젠가는 내가 이 자리를 비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나무가 처음 있을 머금을 때는 그 나무만의 독특한 색깔을 뽐냅니다. 저마다 색깔로 자신을 마음껏 뽐내 생각이 넘칩니다. 가지마다 새로 돌아온 잎들이 찬란한 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을 이루는 것입니다. 꽃이 없는 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대지에 꽃이 피지 않는다면 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침묵의 봄’을 두려워합니다.

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시절인연을 만나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견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화는 반만 피었을 때가 보기 좋고 벚꽃은 활짝 피었을 때가 볼만합니다. 또 복사꽃은 멀리서 바라볼 때가 환상이고, 배꽃은 가까이서 보아야 그 자태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매화는 반만 피었을 때 남은 여백의 운치가 있고, 벚꽃은 남김없이 활짝 피어나야 여한이 없습니다. 복사꽃을 가까이서 보면 비본질 요소 때문에 본질이 가려집니다. 봄날 분홍빛이 지닌 환상미가 반감되고 맙니다. 복사꽃은 멀리서 봐야 분홍빛이 풀어내는 분위기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배꽃은 가까이서 봐야 배꽃이 지닌 맑음과 뚜렷한 윤곽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두고 그리워

준비된 나무만이 시절 인연 만나 꽃 핀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진실, 향기로움은 영향력

그들은 요즘처럼 세계가 과소비로 치달다 보면 침묵의 봄이 온다고 말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계절을 맞지만 봄에 여름의 기운을 느낄 때가 있고 늦은 봄에 눈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 불가능한 기후변화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꽃은 우연히 피지 않습니다. 계절이 변함에 따라서 꽃이 피는 것 같지만 한 송이의 꽃이 피기까지는 그 배후에 인고의 세월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진 추위와 더위, 흑심한 가뭄과 장마와 같은 악조건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나무만이 시절인연을 만나서 꽃·잎으로 피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꽃과 잎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꽃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내안에 피어나는 꽃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꽃으로 피어날 씨앗을 뿌린 적이 있었었는가?’ 준비된 꽃과 잎들만이 계절이 왔을 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계절을 만나도 변화

하는 그런 사이가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마주 앉아 회포를 풀어야 정겨워 지기도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사이라 할지라도 늘 한데 엉켜 있으면 오래 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림고 아쉬움이 받쳐줘야 그 우정이 시들지 않습니다. 휴대폰과 인터넷이 넘치는 세상이라서 사람들은 뭉치기 단박에 이루어 줍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참고 기다릴 줄 모릅니다. 뜬 들일 줄 몰라요. 뭉든 즉석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사물을 볼 때 인과성을 동시에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높은 산 낮은 산 할 것 없이 벚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온 국토에 핀 벚꽃을 볼 때 나무의 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의 조화와 신비 앞에 숙연해지기 까지 합니다.

식물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자리에 살아가는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한 치도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꽃과 씨앗으로 자기 공간을 넓혀 갑니다. 현재 산에 핀 벚꽃은 사람의 손

을 거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의 손을 거쳤다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줄이 일정하거나 여겨왔을 것인데 자연이 뿌려놓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벚꽃 자신이 꽃과 씨앗으로 펼쳐 놓을 것입니다. 향기로운 꽃은 벌들을 불러들여서 열매를 맺게 하고, 버찌가 지닌 달콤달콤한 맛을 내는 것은 새를 불러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새들은 그 버찌를 먹고 소화되지 않는 씨앗을 여기저기 배설해 놓습니다. 배설된 씨앗은 흙이 터서 온 산에 벚꽃을 피웁니다. 여기 자연의 조화와 신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물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 또한 봄날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들이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외우는 것 중에 <천수경>이 있죠. 뜻을 생각하면서 외우면 참 좋은 법문인데 건성으로 따라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천수경> 도량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량청정무하에 삼보천통강자지(道場淸淨無瑕穢 三寶天龍降此地) ‘도량이 맑고 깨끗해서 더러움이 없으면, 불법삼보와 천룡팔부 신장이 이 도량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철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상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범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을 촉구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흥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중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엮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리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평가, 신발,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의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별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원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현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중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